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The canoni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심리 및 상담전공

강 수 미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The canoni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지도교수 이 경 화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심리 및 상담전공

강 수 미

강수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25일



주 심 철 학 박사 이 희 영 (인)

위 원 철 학 박사 이 연 우 (인)

위 원 교육학 박사 이 경 화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 정의	5
가. 자아존중감	5
나. 정서조절능력	5
II. 이론적 배경	7
1. 자아존중감	7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7
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10
다. 자아존중감 관련변인	11
2. 정서조절능력	14
가. 정서조절능력의 개념	14
나.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	16
다. 정서조절능력 관련변인	18
3.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19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연구도구	23
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23
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25
3. 자료 분석	26
 IV. 연구결과	28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변수군 간의 관계	28
2. 유아의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변수군 간의 관계	33
 V. 논의 및 결론	39
1. 요약 및 논의	39
2. 결론 및 제언	40
 참고문헌	42
 부 록	49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 현황	23
<표 2> 유아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4
<표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 4> 유아의 연령별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28
<표 5> 연령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정준상관함수의 유의성 검정	29
<표 6> 연령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정준상관 ..	30
<표 7> 유아의 성별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34
<표 8> 성별 유아의 자아 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정준상관함수의 유의성 검정	34
<표 9> 성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정준상관	35

Abstract

The canoni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Kang, Su Mi

Child Psychology & Counseling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1. How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 regul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age variable of young children?
2. How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 regul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sex variable of young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26 young children in 12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and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the SPSS 23.0 v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elf-esteem and emotional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he emotional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was the predictor of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hence, a causal and effec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variables. Second, regardless

of age variable, emotional regulation variable groups were highly predicted to self-esteem variable groups of each 3-5 age groups. Third, emotional regulation variable groups were also highly predicted to self-esteem variable groups for both female and male young children.

Key words: young children, self-esteem, emotional regulation



국문초록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지도교수 이 경 화

아동심리 및 상담학과 강 수 미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여, 다양한 하위 요인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유아의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2곳에 재원하고 있는 42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합치도 계수(Cornbach` a)를 산출하여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자아존중감의 경우 Haltiwaner(1989)가 개발한 유아의 자아존중행동 측정-The Behavioral Rating Scale of Presented self-Esteem for Young Children척도를 최현미와 신동주(201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조절능력은 ERC (Shields와 Cicchetti(1997)의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한 여은진(2009)의 유아용 정서조절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라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의 3개 변수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변수군과 적응적 정서조절과 불안정 정서조절 변수군으로 구성된 정서조절능력 변수군 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각 개별변수들 간의 상호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 변수군 간의 관계는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로 작용하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령에 상관없이, 즉 3세, 4세, 5세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변수군의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상관없이, 즉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변수군의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내·외 연구와의 비교 및 이론적 논의점을 기술하였고,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에 관해 후속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유아,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정준상관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는 다차원적 역량을 지닌 구성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기대를 고려해 볼 때, 구성원들이 다차원적 역량, 즉 인지적, 학습적 역량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 교육기관을 경험하는 발달의 초기, 즉 유아기부터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되고 있다.

유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 변화 또한 많은 시기이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문구처럼 교육의 효과와 기대성이 일생 중 가장 높은 때이며, 문제발생의 원인을 차단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일생을 살아가며 부딪치는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건강한 어른을 길러내기 위해 중점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인간의 특성으로 본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조절력(emotional regulation)은 유아기의 사회적 발달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자아존중감은 인간 발달을 논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개념으로, 유아기의

자아존중감이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후 학교 적응이나 사회 적응에서도 중요한 심리 변인임은 잘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결정하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간행동에 대한 결정과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중요 성격 특징 중 하나이며, 개인의 자아 실현 성취에 많은 영향을 준다. 송인섭(1998)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인생에서 매우 많은 선택을 하며,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 자극을 추구하는 삶을 즐기며 창조적인 생산을 해낸다.” 고 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대해 연구한 많은 학자들 또한,

“유아기가 자아존중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초석을 쌓는데도 최적의 시기”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유재련, 1988).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인 변인을 검증하거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우정의 질이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배창일, 2012; 손해진, 2013; 최내리, 2014; 최현미, 2011).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함께, 최근에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능력의 하나로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사회적 맥락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으로써 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유아기의 중요한 사회적 기술로서 유아기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유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러한 정서조절을 통해 유지한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김지현, 2006). 유아기는 인지발달뿐만 아니라 정서발달에 있어서도 가소성이 큰 시기임이 밝혀짐에 따라 유아의 정서발달 특히,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지현, 2009).

유아기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지현, 2009), 아버지의 양육행동, 놀이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전숙희, 2015),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송수지, 2014) 등으로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유아기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에 비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들 둘 간의 관계에서 어떤 요소가 더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정서조절능력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각각의 독립적인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접근한 경우가 다수이며, 부모의 양육태도 등 외적 요인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능력 각각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오면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이 둘 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유아기의 자아존중감이나 정서조절능력을 다른 선행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거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하위요인들 간의 종합적인 관계나 설명력을 검증해내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김미경, 2013; 정지혜, 2011)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김설화, 2008),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계(신인영, 2013), 어머니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박희연, 2011), 만 4,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경향 및 관계(고현경, 2010)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그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권소영(2002)은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그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김인옥(2008)은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으며,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은정(2011)은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이해 일정부분 설명됨을 알 수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 또한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희선(2009)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러 기존연구에서 살펴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거나, 정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일정 부분 서로가 다른 요인에 대해 설명력을 갖거나, 하나의 변인이 높으면 다른 변인도 높다는 연구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의 한계점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려주고는 있으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중 어떠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더 영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은 여러 요인들로 구성된 복합적 심리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특히 각 하위요인들을 변수군(變數群)으로 설정하여 이들 변수군들 간의 복합적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을 구성하는 각 변수군이 상대 변수군과 어떠한 관계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보는 분석 작업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변수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통계분석방법으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들 수 있다. 정준상관분석은 변인간의 정준함수를 도출해냄으로써 변인간의 설명력으로 관계를 설명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유아의 연령이나 성에 따라 이러한 변수군들의 관계 및 상대변수군에 대한 예측력이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는 상관분석방법이므로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변수군, 즉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과 정서조절능력을 구성하는 변수군, 적응·불안정 정서조절의 두 변수군 간의 관계를 통해 상대변수군에 대한 예측력을 알아볼 것으로, 이를 위해 정준상관분석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아기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발달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중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유아기 사회성 발달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돕는데 의미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는 자기 행동의 결과 관찰 및 해석과 사회적 학습 등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해 가는 자아에 대한 평가적 신념이며, 본인이 타인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자신이 행한 일을 훌륭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의미한다(Harter, 1983).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Haltiwaner(1989)가 제시한 유아의 자아존중행동척도의 구성요인인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을 측정하여 얻은 점수라고 규정한다.

나.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함과 동시에 이를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Parker & Asher, 1987). 정서조절은 적응적인 것과 불안정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불안정적인 정서 또한 효율적으로 조절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적응적 또는 불안정적인 정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정서를 유지시키고 조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을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정서조절 체크리스트의 구성요인인 적응적 정서조절과 불안정 정서조절을 측정하여 얻은 점수라고 규정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이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자신에게서 스스로 소중한 존재로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유능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이루어낸 사람은 자아존중감을 지닐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시선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느낌으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갖기 위한 첫 단계이다. 자아존중감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90년대 미국의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William James였다. 그는 자아존중감은 흔히 자존심이라는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두 개념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면 인간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존감은 자신이 지닌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긍정을 뜻하며, 자존심은 타인과의 경쟁구도에서의 긍정을 뜻하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최내리, 2014).

James(1890)의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본인의 전반적인 능력과 총체적 성공으로 자아존중감을 규정하였으며, 전반적인 능력이란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총체적인 성공이란 주변 환

경과의 조화, 사회적인 승인, 자신에 대한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행동적 관점에서 유능함이나 성공적인 행동이다(최내리, 2014 재인용).

1890년대 James에 의해 시작된 자아존중감의 연구는 오랜 세월동안 유아교육의 중요한 키워드였으며, 1960년대에는 스스로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1970년대에는 본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적 신념으로, 이후 1990년대에는 스스로가 느끼는 본인에 대한 이해와 느낌으로 정의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송인섭(1984)은 자아존중감을 자기에 대한 중요한 느낌으로서의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정의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란 첫째,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둘째,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개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 자기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태도 및 이에 따른 정서를 포함하는 판단적 내면으로 정의되기도 하며(홍명수, 1997),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태도 속에 반영되는 인격의 안정된 요소, 즉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로 정의(이순재, 1994)되기도 하였다.

정희정(2003)은 자아존중감을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내리는 진단으로 표현을 하며 본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생의 전 단계에서 행복도와 생활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등 인간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에게는 학교성적 뿐만 아니라 또래 및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으며, “개인의 중요한 심리적 개념으로 자아체계, 성격 및 행동을 이해함으로서 알 수 있는 개념이며 개인의 총체적인(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자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은 일련의 평가적 신념으로서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으며, 도덕적인 행동, 독립심,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의지 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도전적인 성향이 높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더 야망을 가지고 삶을 창의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며, 의존하고 공허하게 사는 것보다는 더 활력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훌륭하게 보일 수 있다.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어려운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적극성을 갖게 하여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에서 좀 더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고, 좀 더 야망을 가지며 삶을 창의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기도 한다. 결국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아존중감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연적인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최현미, 2011). 즉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유아의 행동에도 개인차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존중하려고 하며, 자애로움과 선한 마음으로 대하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한 만 2세경부터 나타나는 자조기술의 성장과 더불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밥 먹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등 일상생활 속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행하면서 유아는 자신의 기본적인

인 능력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신뢰감은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박찬옥 외, 2001). 예전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는 때는 만 5세경으로 실질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로(권기욱, 2011; 최현미, 신동주, 2012) 능력과 기술이 증진되면서 스스로를 결정, 행동, 독립하고 ‘나’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커진다(권하나,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유아에 비해 훨씬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당면하는 일에 대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학자들은 서로 다른 내용과 형태로 자아존중감을 정의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자아체계와 성격, 행동 등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심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전체적인 자아를 이루어나가고 성장시켜나가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유능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평가적 신념이며 외부환경이나 문제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 타인과 구분되어 나타나는 독립심, 자신 이외의 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겨나가고 자 하는 의지 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Haltiwaner는 자아존중감은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최현미, 2011).

각 하위 영역에 특징으로 유아가 도전적인 일에 대한 선호도는 새로운 것을 할 때 열정을 가지며, 높은 목표를 잡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인

일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독립심은 도전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며, 새로운 일이나 과제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행동하거나 또한 이를 이루었을 경우 성취감과 긍지를 보이는 행동을 보이며, 독립심의 문항적 준거를 살펴보면, 활동에 있어서 자기 주도성,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경우 자신의 의도대로 선택을 하는 의도성,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즐기는 성향을 보일 경우가 많다.

또 다른 하위요인으로 학업성취의 문항을 살펴보면,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과제에 대해서도 거부감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해 보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기존에 알던 과제가 아닌 자신이 접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과제가 주어졌을 때 태도, 본인의 능력보다 힘이 든 과제를 대했을 때 끝까지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보이는가, 창의적 사고력을 해 내는가 하는 것에 그 준거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성의 경우 스스로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 실패에 쉽게 좌절하지 않는 특성 유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가, 타인에 대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이는 특성이다. 또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히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판과 갈등을 조화롭게 조절하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 자아존중감 관련변인

자아존중감을 ‘영혼의 생존’ 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존엄성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싹트고, 작은 성취나 칭찬 또는 성공을 통해서 형성된다(정옥분, 2006).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타인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되며 그 중 중요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부모, 교사,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발달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 주변인들이 유아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자각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이와는 달리 평가한다고 자각할 때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연구결과에서 유아와 관계를 가지는 유의미한 관계 중 가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미 있는 인물로부터 받은 수용과 존경 및 관심의 양이다. 둘째, 유아 스스로의 개인적 가치와 포부이다. 셋째, 본인이 자각하는 가치와 포부이다. 넷째, 타인으로부터 받는 과소평가에 대해 반응하는 유형 등이다. 특히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즉, 부모의 수용적 태도, 허용적 처벌, 민주적 훈련이 강조되어 왔다(Mead, 1934).

이와 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 이르러 가정 형태에 변화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난 연구 결과 중 하나를 살펴보면 가족구성의 형태에 따라 대가족인 유아가 핵가족인 가족의 형태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또한 핵가족 유아보다 대가족 유아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역시 핵가족 유아에 비해 대가족 유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가정환경에서의 유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자극 정도와 자아존중감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유아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김은진, 2010). 또한 자신의 주변에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중요도에 따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경험과 관심 있는 대우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성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았다(남정홍, 2001).

자아존중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로서 인식하기도하고, 유아의 환경이나 생활경험의 영향을 받는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며, 후천적 요인이 선천적 요인보다 훨씬 더 영향을 끼침으로서 그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어, 사람은 자기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함에 있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가는 것이며(Walsh, 1988), 가정환경의 경우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환경 중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정하고 그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변인이 있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증진에 중요한 변인과 자원으로써 부모를 인식하고, 이는 곧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증진에 중요한 자원이자 변인으로써 부모를 바라보며,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갖는 부모의 자녀는 그에 비례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김영숙, 1999). 또한 학력이나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정환경과 자아개념이 긍정적적인 것일 가능성의 반응 또한 높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차동완, 2000).

이러한 변인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 환경적인 요인 중 가족관계가 개인

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그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요인보다 그 많은 변수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는 견해는 학계나 학자들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결국 자아존중감은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 요인 중 유아와 상호작용을 나누고, 감정의 유대를 주고받는 주변인, 그 중에서도 부모와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조우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성장과정 중 주위에 함께 하는 사회적 관계에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으며 그중, 특히 또래와의 관계에서 받은 영향성은 아동의 성장과 비례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적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또 다른 연구에서는 또래에 비해 수준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유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른 아동에 비해 유능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때문이며, 이런 유아들은 성장함에 따라 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경험하고 또래와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도 과업을 더 잘 수행해낸다고 주장하였다(장휘숙, 2010).

유아가 성장할수록 만나는 사회적 관계는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 짝을 띄우기 시작하였다면, 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만나는 교사와 또래를 통해 발화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아가 인격을 형성하고 가정환경을 통해 길러져 왔던 자아존중감을 어떠한 방향으로 키워나갈 것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2. 정서조절능력

가. 정서조절능력의 개념

인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은 늘 어떠한 결정을 요구하며, 이 요구에 응함으로서 사람의 삶은 다양한 방향성을 띄고 나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중 주목되는 정서조절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 상태나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정서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신적인 처리 능력으로서 자아존중감과 함께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발달의 한 분야이며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며 통제하고 표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특히 유아기는 표출하는 방식을 배우고 연습하는 첫 단계로서의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서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정서와 욕구만족의 충동을 조정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하는 행동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등의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며 (Gottman & Katz, 1989), 내적으로 발생하는 감정 상태와 연관된 생리학적 과정을 인식하고 그것의 강도와 지속기간 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개념화하였고(Thompson, 1994), 분노, 슬픔, 우울 등의 정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다루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

다(한영미, 2009). 또한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개인을 사회 적응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강민수, 2001).

이러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영·유아기 때부터 정서적 자극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적응력이 획득되기 시작한다. 이때 형성된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기술로 발전하면서 훗날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서가 조절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정서가 어떻게 조절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인간 상호작용에서의 문제해결을 이끌어내는지에 관한 심리학적 과정에 연구가 집중되고 맥락적 접근으로서 사회화 환경에 의한 정서조절능력의 개인차 연구에 강조기를 두기도 한다. Gottman과 Katz(1989)는 스스로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진정시킬 줄 아는 유아는 인기가 있고 사회적 유능감이 뛰어나며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 표출이 드물다고 평가한다.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타인에게 공격적인 반응과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면(김지윤, 2007), 스스로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아는 또래와 갈등을 적게 경험하였으며, 자신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하여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라 하였다(한유진, 2006).

종합해보면,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 이외의 타인과 만나게 되는 외부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 상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영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하위요인의 특징과 요인의 수에 관해 일치된 연구는 구체적으로 찾기는 힘들며, 주로 과제나 척도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 따라서는 여러 요인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요인만으로 정서조절능력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다(이정란, 2003; 정은주, 2005).

자기조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많은 연구가 자기조절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순응(compliance), 충동억제(impulse control),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 유혹저항(resistance to temptation), 혐오적 상황에 대한 인내, 주의통제, 정서조절, 충동억제 등의 개념 중 일부를 선택하거나 또는 전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정란, 2003).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으로서 적응적 정서조절과 불안정정서조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적 정서조절 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반응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감정이입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인의 감정조절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시무룩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빨리 회복하거나,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말하며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불안정 정서조절의 영역을 살펴보면, 문제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경향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자신의 분노나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

지 못하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종미, 2013).

다. 정서조절능력 관련변인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내적인 변인으로 연령, 인지양식, 기질 등과 외적인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정서조절양식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유아의 내적인 변인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서 3세와 5세를 대상으로 과제실험을 한 결과,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력은 5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세보다는 5세가 만족지연행동과 순응성을 보이며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감이 있으며, 대처 행동에 있어서 문제 중심적인 행동을 보인다(이은경, 2002).

또한 3세와 5세의 분류과제를 통해 순응성을 실험한 결과 3세보다 5세가 더 높았으며 가정규칙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시점 또한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호진, 2002). 인지양식의 면에서 보면, 유아가 3세경이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능력인 언어, 표상적 사고, 주의력, 이해력이 발달됨에 따라 스스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정은주, 2005).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높다고 함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희, 1998).

다음으로 기질을 볼 수 있는데, 아동의 정서조절과 기질과의 관련성을 보면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아동은 감정 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의 정서조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기질이 융통성이 있고 명랑하며 주의집중적일수록 아동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의 정서조절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2001).

또한 유아의 외적인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는데 합리

적, 수용적, 온정적이며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조절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ochanska & Aksan, 1995; 안미경,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 발달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정은주, 200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조절방식이 표현적, 내면 지향적, 보상적일수록 아동의 정서조절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 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2001).

이와 같이 정서조절능력의 유아의 다양한 내·외적인 변인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 간의 상관관계를 논의하였던 김동직(1992)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게 확립된 학생들은 능동적이며, 미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들로써 갈등이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심한 갈등상태에 빠져 있으며, 타인의 평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쉽게 동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 부적응이 더 심한 것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업성적, 인성형성과 발달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능력과 존재의 의미를 수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일탈적인 행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비행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런 점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인옥(2008)은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그리고 가족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요인으로 또래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자기조절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언숙, 2008).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개인내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아동의 내적 통제 소재는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가진다(최해주, 2007). 권소영(2002)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분석결과 유아의 정서지능은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요인과 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 순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박은정(2011)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일정부분 설명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도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정희선과 박성연(2010)의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유능감이 높고 자신에 대해 만족할수록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행동이나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내적 통제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숙, 이승은, 2007).

이경님(2001)의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은 상관이 있어

자아존중감은 자기보상이 되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주희(2009)의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2006)의 연구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자기조절능력과 가장 큰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기조절능력은 청소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한다. 자기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낮은 학업성취와 부 적응적이고 충동적이며 공격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된다(이명진, 2011).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은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 소재 공·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총 12곳에 재원하고 있는 만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총 6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평정을 위한 설문지의 응답은 담임교사가 담당학급의 유아들과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중 총 447명의 응답 받아 설문지 회수율은 약 72%로 나타났다. 그중 분석에 사용하기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부를 제외하였으며, 또한 설문지 응답 시기인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만 4세에 도달하지 못한 13부를 제외한 426명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분석을 완료하였다.

회수된 자료의 연구대상은 연령별로는 만 4세 34.3%, 만 5세 37.6%, 만 6세 28.2%였으며 성별로는 남아 51.2%, 여아 48.8%로 고른 분포도를 보였다. 연구대상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현황 (n=426)

특성	구분	n	%
연령	4세(48-59개월)	146	34.3
	5세(60-71개월)	160	37.6
	6세(72-85개월)	120	28.2
성	남아	218	51.2
	여아	208	48.8

2. 연구도구

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Haltiwanger(1989)가 개발한 유아의 자아존중행동 측정-The Behavioral Rating Scale of Presented self-Esteem for Young Children 척도를 최현미와 신동주(201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의 변수군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총 19문항으로 이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를 사용함으로서 별도의 수정과 예비연구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신뢰도와 문항구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 번째 구성요인인 독립심은 유아가 새로운 것을 시작함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앞선 행동을 보이며, 도전적인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함으로써 얻은 결과에 성취감과 긍지를 보이는 행동양상으로, ‘이 유아는 자신이 앞장서서 행동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두 번째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로 보는 학업성취는 유아가 창의적 사고력이 다른 유아에 비해 뛰어나며, 본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성향을 보

이며 기존의 과제와 다른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 유아는 자신이 성취한 활동에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가진다’ 등의 문항이 이 요인에 포함된다.

세 번째 구성요소로서 사회·정서성을 이야기하며, 유아가 다른 사람과의 눈을 마주치기를 좋아하며,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비판을 본인 안에서 조화롭게 조절하며 관계의 변화에 대해 잘 적응하는 특성들을 이야기 한다. ‘이 유아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내용 등이 이 요인에 포함된다.

자아존중감은 위의 3가지 요인이 포함된 상위개념으로서 각 문항의 형식은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4,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검사 도구를 사용하기에 앞서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로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독립심 .87, 학업성취 .91, 사회·정서성 .89로 아래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수)	내 용	문항 예	Cronbach's α
독립심 (6)	도전적인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함	이 유아는 자신이 앞서서 행동하지 않는다.	.87
학업성취 (6)	기존과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해 보고자 함	이 유아는 자신이 성취한 활동에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가진다.	.91
사회·정서성 (7)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조절하며 관계의 변화에 잘 적응 함	이 유아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좋아한다.	.89

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Shields와 Cicchetti(1997)의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가 있으며, ERC는 정서적 각성 상태에서 아동의 정서 조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적응적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과 불안정 부정성(instability/negativity)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교사가 평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ERC를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여은진(2009)의 유아용 정서조절 설문지를 본 연구의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적응적 정서조절, 불안정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로 문항이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예비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적응적 정서조절 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반응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감정이입에 대한 문항(예.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고통스러워 할 때 관심을 보이거나 함께 걱정해준다)을 포함하고 있다.

불안정 정서조절 영역은 자신의 분노나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예.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기어들거나 방해할 하면 매우 흥분한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을 포함하고 있다(서중미, 2013).

정서조절능력은 위의 2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된 상위개념으로서 각 문항의 형식은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4,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처리되었으며 설문지 배부에

앞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검사에서 적응적 정서조절의 신뢰도는 .84이며 불안정 정서조절의 신뢰도 계수는 .90로 아래에 제시된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수)	내용	문항예	Cronbach's α
적응적 정서조절 (9)	본인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적절한 조절과 공감능력	이 아이는 어른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84
불안정 정서조절 (15)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안정 정서에 대한 적절치 못한 정서조절능력	이 아이는 어른들이 “안돼” 라고 말하거나 체재를 가하면 화를 낸다.	.90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분석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합치도 계수(Cornbach` α)를 산출하여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의 목적은 종속변수군과 독립변수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종속변수와 다수의 독립변수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차원이 아닌,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하여 개인의 적응적 정서조

절과 불안정 정서조절로 구성된 정서조절능력을 구성하는 변수군 간에 어떤 변수가 더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준상관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실시된다.

첫째, 두 개 이상의 종속변수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다변량분석기법으로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모두 두 개 이상이고 모든 변수가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정량적 자료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두 변수간의 집단으로서의 관계를 알기 위함이다.

둘째, 두 변수군 간의 관계에 기여하는 각 개별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내어 이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셋째, 이미 도출된 선형조합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변수군 또 다른 선형조합을 구하기 위하여, 즉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몇 개)까지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넷째, 두 변수군의 선형조합간의 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는 가중치를 구하여 상대 변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이영준, 2002).

정준상관분석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여 연령과 성에 따라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의 3개 변수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변수군과 적응적 정서조절과 불안정 정서조절의 2개 변수로 구성된 정서조절능력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변수군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변수군과 정서조절능력 변수군 간의 집단으로서의 관계를 알아보고 두 변수군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각 개별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유아의 연령별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연령별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n)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 정서성	적응적 정서조절	불안정 정서조절
4세 (146)	3.56(.88)	3.63(.82)	3.67(.72)	3.65(.61)	2.01(.61)
5세 (160)	3.57(.68)	3.62(.75)	3.64(.69)	3.58(.62)	2.17(.58)
6세 (120)	3.52(.59)	3.59(.74)	3.60(.63)	3.43(.54)	2.39(.65)

<표 4>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중의 변수군 중에서는 4, 5, 6세 모두 사회·정서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능력의 변수군의 경우에는 4, 5, 6세 모두 적응적 정서조절이 불안정 정서조

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 따라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군 중 4, 5, 6세 모두 개별변수 수에 따라 2개씩의 정준상관함수가 도출되었고, 각 함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령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정준상관함수의 유의성 검정

연령	함수	정준상관 계수	Wilk's λ	Chi-SQ	DF	Sig.
4세 (146)	1	.85	.27	185.19	6	.000
	2	.17	.98	3.29	2	.193
5세 (160)	1	.82	.31	184.32	6	.000
	2	.25	.94	10.03	2	.007
6세 (120)	1	.82	.32	132.15	6	.000
	2	.07	.99	.57	2	.753

<표 5>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연령별 2개씩, 총 6개의 정준함수가 도출되었으며 가능성 비율(likelihood ratio)을 나타내는 Wilk's Lamda의 기준(0.0)에 따라 이들 중에서 4세의 경우에는 함수1($r=.85$, $\lambda=.27$, $p<.001$)이, 5세는 2개의 함수, 즉 함수1($r=.82$, $\lambda=.31$, $p<.001$)과 함수2 ($r=.25$, $\lambda=.94$, $p<.01$)가, 6세는 함수1($r=.82$, $\lambda=.32$,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준상관함수들의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s),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s), 정준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loading), 정준중복지수(redundancy index)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연령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정준상관

연령 (n)	변수	정준함수 1			정준함수 2			
		W	L	CL	W	L	CL	
4세 (146)	자아 존중감	독립심	-.10	-.58	-.49			
		학업성취	-.13	-.82	-.69			
		사회·정서성	-.85	-.99	-.84			
	정준중복지수		.47					
	정서조절 능력	적응	-.98	-1.0 0	.03			
		불안정	.04	.49	.87			
	정준중복지수		.45					
5세 (160)	자아 존중감	독립심	-.26	-.75	-.62	-1.1 3	-.46	-.12
		학업성취	.04	-.83	-.68	1.29	.40	.10
		사회·정서성	-.86	-.98	-.80	-.23	.16	.04
	정준중복지수		.50			.01		
	정서 조절능력	적응	-.92	-.99	-.81	.67	.13	.03
		불안정	.14	.58	.48	1.13	.81	.20
	정준중복지수		.45			.02		
6세 (120)	자아 존중감	독립심	-.18	-.78	-.65			
		학업성취	-.27	-.89	-.73			
		사회·정서성	-.64	-.97	-.80			
	정준중복지수		.53					
	정서조절 능력	적응	-.84	-.95	-.78			
		불안정	.33	.62	.51			
	정준중복지수		.43					

* W: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 L: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s) CL: 정준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loading)

<표 6>에 따르면, 4세의 정준함수 1에서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해 정서조절능력의 변수군의 설명력은 47%이고,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변수군의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에는 정준함수 1에서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변수군의 설명력은 50%이고, 정서조절능력 변수군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변수군의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정준함수 2의 경우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변수군의 설명력은 1%로,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변수군의 설명력은 2%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정서조절 변수군이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해 51%의 설명력을 가지며,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해 정서조절 변수군은 4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세의 정준함수 1에서는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변수군의 설명력은 53%이고, 정서조절능력 변수군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변수군의 설명력은 43%로 설명하는 관계이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아존중감의 변수군과 정서조절능력의 변수군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한편, 세 연령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서조절능력군의 설명력이 다소 높게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설명력이 4, 5, 6세 각각 47%, 51%, 53%로 나타남으로써 유아의 연령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정준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정준중복지수를 이용해 두 변수군 간의 관계를 유추한 후의 단계로 정준변량을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정준가중치, 정준부하량, 정준교차부하량의 세 가지 통계치 중 선택하거나 함께 고려해서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정준중

복지수의 경우 수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준부하량의 값과 정준교차부하량의 값에 대해 Hair(1998)가 제시한 기준 절대치 .40보다 큰 경우의 변수를 각 정준변량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이용하고, 두 가지 통계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준함수 1의 두 변수군의 개별변수 간의 관계 및 상호예측력을 파악하였다(이영준, 2002, 재인용).

<표 6>의 4세의 정준함수 1에서는 정준변량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아존중감에서는 독립심($L=-.58$, $CL=-.49$)과 학업성취($L=-.82$, $CL=-.69$)와 사회·정서성($L=-.99$, $CL=-.84$)이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에서는 불안정($L=.49$, $CL=.87$)이 나타났다. 정준가중치가 개별변수들 간의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독립심($W=-.10$), 학업성취($W=-.13$), 사회·정서성($W=-.85$)은 정적 상관관계이나 불안정($W=.04$)과는 부적 관계에 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4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에 의해 설명되며, 자아존중감은 불안정 정서조절능력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세의 정준함수 1에서는 정준변량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아존중감에서는 독립심($L=-.75$, $CL=-.62$), 학업성취($L=-.83$, $CL=-.68$), 사회·정서성($L=-.98$, $CL=-.80$)이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적응($L=-.99$, $CL=-.81$), 불안정($L=.58$, $CL=.48$)이 나타났다.

4세와 마찬가지로 정준가중치가 개별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제시해주는 것을 고려해보면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은 적응($W=-.92$) 정서조절능력과는 정적 관계가 불안정($W=.14$) 정서조절능력과는 부적 관계가 성립됨으로서 적응 정서조절능력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높아

지며, 불안정 정서조절능력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세의 경우를 보면 정준변량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아존중감에서는 독립심 ($L=-.78$, $CL=-.65$), 학업성취 ($L=-.89$, $CL=-.73$) 사회·정서성 ($L=-.97$, $CL=-.80$)이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에서는 적응 ($L=-.95$, $CL=-.78$), 불안정 ($L=.62$, $CL=.51$)이 나타났으며, 5세와 마찬가지로 관계성을 보면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은 적응 정서조절능력과는 정적 상관관계 ($W=-.84$)가 그리고 불안정 정서조절능력과는 부적 상관관계 ($W=.33$)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령별로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변수군 간에 4개의 유의미한 정준상관함수가 도출되었고, 두 변수군 간의 관계는 상호교호적인 동시에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별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에 대해 적응 정서조절능력과 독립성,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불안정 정서조절능력의 경우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4, 5, 6세 세 연령 모두가 자아존중감의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에 대해서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의 예측력이 높게 나타나는 관계임을 볼 수 있다.

2. 유아의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변수군 간의 관계

분석에 앞서 유아의 성별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표 7> 유아의 성별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성 (n)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	적응적 정서조절	불안정 정서조절
남아 (218)	3.46(.69)	3.46(.74)	3.50(.68)	3.48(.58)	2.23(.62)
여아 (208)	3.64(.77)	3.78(.77)	3.79(.66)	3.65(.61)	2.12(.63)

<표 7>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중의 변수군 중에서는 남아, 여아 모두 사회·정서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능력의 변수군의 경우에는 남아, 여아 모두 적응적 정서조절이 불안정 정서조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 따라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군 중 남아, 여아 모두 개별변수 수에 따라 2개씩의 정준상관함수가 도출되었고, 각 함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성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정준상관함수의 유의성 검정

성	함수	정준상관계수	Wilk's λ	Chi-SQ	DF	Sig.
남아 (218)	1	.84	.30	261.51	6	.000
	2	.16	.97	5.84	2	.054
여아 (208)	1	.80	.36	208.71	6	.000
	2	.07	.99	.91	2	.634

<표 8>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성별 2개씩, 총 4개의 정준함수가 도출되었으며 가능성 비율(likelihood ratio)을 나타내는 Wilk's Lamda의 기준(0.0)에 따라 이들 중에서 남아의 경우에는 함수 1($r=.84$, $\lambda=.30$, $p<.001$)이, 여아의 경우에는 함수 1($r=.80$, $\lambda=.36$,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준상관함수들의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s),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s), 정준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loading), 정준중복지수(redundancy index)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성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정준상관

연령 (n)	변수	정준함수 1		
		W	L	CL
남아 (218)	독립심	-.20	-.70	-.58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00	-.79	-.66
	사회·정서성	-.87	-.99	-.82
	정준중복지수		.48	
	정서조절능력			
	적응	-.90	-.98	-.82
여아 (208)	불안정	.20	.57	.47
	정준중복지수		.45	
	독립심	-.14	-.65	-.52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18	-.87	-.70
	사회·정서성	-.77	-.98	-.78
	정준중복지수		.46	
	정서조절능력			
	적응	-.98	-1.00	-.80
	불안정	.05	.52	.41
	정준중복지수		.41	

* W: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 L: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s) CL: 정준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loading)

<표 9>에 따르면, 남아의 정준함수 1에서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해 정서조절능력의 변수군의 설명력은 48%이고,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변수군의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는 정준함수 1에서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변수군의 설명력은 46%이고, 정서조절능력 변수군에 대한 자아존중감 변수군의 설명력은 41%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아존중감의 변수군과 정서조절능력의 변수군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남아, 여아 모두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서조절능력군의 설명력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관계를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설명력이 남아, 여아 각각 48%, 46%인 것으로 보아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설명력이 여아보다 높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정준상관관계도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살펴 본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정준상관관계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정준중복지수를 이용해 두 변수군 간의 관계를 유추한 후, 다음 단계인 정준변량의 해석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정준가중치, 정준부하량, 정준교차부하량의 세 가지 통계치 중 선택하거나 함께 고려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정준중복지수의 경우를 보면 수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연령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정준상관을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정준부하량의 값과 정준교차부하량의 값에 대해 Hair(1998)가 제시한 기준 절대치 .40보다 큰 경우의 변수를 각 정준변량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이용하고, 두 가지 통계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준함수 1의 두 변수군의 개별변수 간의 관계 및 상호예측력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이영준,

2002, 재인용).

<표 9>의 남아의 정준함수 1에서는 정준변량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아존중감에서는 독립심($L=-.70$, $CL=-.58$)과 학업성취($L=-.79$, $CL=-.66$), 사회·정서성($L=-.99$, $CL=-.82$)이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에서는 적응($L=-.98$, $CL=-.82$), 불안정($L=.57$, $CL=.47$)이 나타났다. 정준가중치가 개별변수들 간의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독립심($W=-.20$), 학업성취($W=0$), 사회·정서성($W=-.87$)은 정적 상관관계이나 불안정($W=.20$)과는 부적 관계에 있고, 적응($W=-.90$)과는 정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에 의해 설명되며, 자아존중감은 적응정서조절능력, 불안정정서조절능력에 의해 설명되는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준함수 1에서는 정준변량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아존중감에서는 독립심($L=-.65$, $CL=-.52$), 학업성취($L=-.87$, $CL=-.70$), 사회·정서성($L=-.98$, $CL=-.78$)이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적응($L=-1.00$, $CL=-.80$), 불안정($L=.52$, $CL=.41$)이 나타났다. 남아와 마찬가지로 정준가중치가 개별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제시해주는 것을 고려해보면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은 적응($W=-.98$) 정서조절능력과는 정적 관계가, 불안정($W=.05$) 정서조절능력과는 부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에 의해 설명되며, 자아존중감은 적응정서조절능력, 불안정정서조절능력에 의해 설명되는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성별로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변수군 간에 2개의 유의미한 정준상관함수가 도출되었고, 두 변수군 간의 관계는 상호 교호적이며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개별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에 대해 적응 정서조절능력과 독립성,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불안정 정서조절능력의 경우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아, 여아 모두 자아존중감의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에 대해서 적응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예측력이 높게 나타나는 관계임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의 변수군인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과 정서조절능력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불안정 정서조절로 표현되는 변수군의 정준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는 정적인 관계를 불안정 정서조절능력과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성을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관련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변수군과 정서조절능력을 구성하는 변수군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상호간에 어떤 설명력을 가지는 관계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상호상관 관계에 있는 한편, 유아의 연령 즉, 3, 4, 5세 연령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변수군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성별 즉,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남아, 여아 모두 자아존중감 변수군에 대해 정서조절능력의 변수군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은 상관관계에 있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비교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상관관계를 재차 확

인한 것이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적응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경님, 2009), 정서조절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일정부분 설명됨을 알 수 있다고 한 박은정(2009)의 연구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조절능력 또한 높게 가진다는 최해주(2007), 김인옥(2008), 권소영(200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덜 하며 적응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수현(2009)의 연구결과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한다는 연구(민경환 외, 200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을 잘 한다고 밝힌 연구들(김인옥, 2008; 유주희, 2009)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변수군 간에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정준상관함수가 도출됨으로서 두 변수군 간의 상호 교호적인 관계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두 변수군 간의 관계가 상호 교호적이며,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개별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을 이루는 독립성,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에 대한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불안정 정서조절능력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한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연령이나 성에 관계없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해주는 인과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남아와 여아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송수지(2014)의 연구 결과가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던 점을 설명하였으며, 이경님(2009)의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중 남·여 아동의 연령

이나, 성별에 대한 비교연구가 없었던 것을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조수현(2009)의 연구도 앞선 두 연구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연구 대상에 남녀 아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을 보완하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성별, 연령에 의한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두 변수군간의 관계를 상호 교호적이며, 남아, 여아 모두 자아존중감의 독립심, 학업성취, 사회·정서성에 대해서 적응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예측력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서 유아의 연령이나 성에 관계없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해주는 인과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밝힌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유아기의 연령이나 성에 관계없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이 상호 예측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한편,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유아기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이러한 결론과 더불어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교사만의 평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집단 내에서의 행동 방식과 가정 내

에서의 행동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양육자가 평가하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평가 역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을 평정할 수 있는 좋은 연구의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사용하였던 측정도구가 성인들만의 평정을 사용하였으므로 차후 다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유아의 자기 평가나 유아교육현장 내에서의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한 이 연구의 후속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장민수 (2001).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경 (2010). 만4,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경향 및 관계
- 권기욱 (2011). 유치원 학급규모가 유아의 자아개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9(4), 23-45.
- 권소영 (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권하나 (2009).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발달과 또래 간 인기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1998).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직 (1992).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에 있어서 자아정체감 수준간의 차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13).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설화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언숙 (2008). 자기표현훈련이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1999).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교육심리**

연구, 13(1), 69-98.

김은진 (2010). 맞벌이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들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옥 (2008).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윤 (200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형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현, 민경환, 윤석빈, 장승민(2000). 부정정 정서조절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 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남정홍 (2001).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정 (2011). 부모공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옥, 김영중, 황혜경, 엄정례, 조경서 (2001). **유아사회교육**. 파주: 정민사.

박호선 (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 행동발달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희숙, 이승은(2007).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치원 적응력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337-356.

- 박희연 (2011). 어머니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창일 (201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종미 (2013).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 조절능력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6).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27-148.
- 손해진 (2013). 만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수지 (2014). 만4세 남녀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 (1984). 자아개념구인의 고차원 요인 타당화. **교육학연구**, 22(1), 55-64.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신인영 (2013).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경 (199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은진 (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75-295.
- 유재련 (1988). 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방안, **경남대학교 논문**, 15, 153-176.

- 유주희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
기조절능력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님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 관계: 아동의 사려
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
학회지**, 39(2), 97-110.
- 이경님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학회지**, 18(3), 1209-1219.
- 이명진 (2011). 자기조절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39,
161-193.
- 이순재 (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
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영준 (2002). **정준상관분석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석정.
- 이은경 (2002). 유아의 행동적 자기규제와 정서적 규제간의 관계. 국민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
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 (2009).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이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2010).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숙희 (2015). 아버지의 양육행동, 놀이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
의 관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은주 (2005). 유아의 행동적,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2011). 유아의 리더십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선 (2009).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경로모형의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선, 박성연 (2010).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9-33.
- 정희정 (2003).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현 (2009).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방략 및 정서조절능력간의 경로모형.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동완 (2000).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천안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내리 (2014).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주 (200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모형분석 :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과 어머니의 변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 (2011).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외적변인에 대한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미, 신동주 (2012). 유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변인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1), 133-158.

- 한영미 (2009). 유아의 도덕적 자아와 정서조망수용 및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 (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홍명수 (1997). 사회적 인식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Haltiwanger, J. (1989). Behavioralreferentsofpresented self-esteem in young children.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MO.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esteem.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275-385). New York: Wiley.
- James, W. T.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NY: Holt.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 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s as correlates of early inte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Mead, G. H. (1934). *Mind, self society*. Chicago, Ma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i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906-916.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Walsh, A. (1988). *Understanding, Assessing, & Counseling the Criminal Justice Client*.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

부 록

1. 자아존중감 척도
2. 정서조절능력 척도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 관한 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지로서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유아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아동의 발달 사항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문항의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문항의 내용에 정답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은 익명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쁜 일과 중에 설문에 응답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0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심리 및 상담 석사과정

강 수 미

유아의 이 름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20.....년.....월.....일

교 사 연 령 :세

교 사 경 력 : 만년

담 당 학 급 명 :반

자격증취득기관 : ① 보육교사 교육원 ② 사이버대학

③ 전문대학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작 성 일 : 2016년월일

<부록 1> 자아존중감 척도

다음은 유아의 행동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유아와 생활하시면서 평소 관찰하시고 느낀 것을 기초로 해당되는 곳에 ○ 또는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유아 이름 (남/여) 생년월일년.....월일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자기 주도적이다.	1	2	3	4	5
2	놀이 중에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5
3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다.	1	2	3	4	5
4	주변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많다.	1	2	3	4	5
5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전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1	2	3	4	5
6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자신이 똑똑하다고 말한다.	1	2	3	4	5
8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말로 표현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1	2	3	4	5
10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보인다.	1	2	3	4	5
11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협조적이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1	2	3	4	5
16	자신이 가지고 놀고 싶은 놀이감이 있더라도 차례를 지키거나 양보한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18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화가 났을지라도 적절히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줄 안다.	1	2	3	4	5
19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좋아한다.	1	2	3	4	5
20	놀이나 활동을 하는 도중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1	2	3	4	5
21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22	또래들과 놀이할 때 혼자 있거나 고립되어 있다.	1	2	3	4	5
23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1	2	3	4	5
24	다른 유아들과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1	2	3	4	5
25	행동이 주어졌을 때 시도해 보지도 않고 무력감을 나타낸다.	1	2	3	4	5
26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7	놀이나 활동을 하는 도중에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28	주어진 과제에 성공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한다.	1	2	3	4	5
29	자신이 한 활동(만든 작품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	1	2	3	4	5
30	자신이 성취한 활동에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가진다.	1	2	3	4	5
31	하나의 놀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더라도 다른 놀이로 전이하지 않는다.	1	2	3	4	5

<부록 2> 정서조절능력 척도

다음은 유아의 정서적 행동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유아와 생활하시면서 평소 관찰하시고 느낀 것을 기초로 해당되는 곳에 ○ 또는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유아 이름 (남/여) 생년월일년.....월일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이 아이는 명랑한 아이이다.	1	2	3	4	5
2	이 아이는 기분이 금세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기분을 예측하기 힘들다.	1	2	3	4	5
3	이 아이는 어른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	2	3	4	5
4	이 아이는 하나의 활동을 하다가 다른 활동으로 옮겨 갈 때 불안해하거나 화, 짜증 등을 내지 않고 쉽게 전환한다.	1	2	3	4	5
5	이 아이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시무룩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빨리 회복한다.	1	2	3	4	5
6	이 아이는 쉽게 좌절한다.	1	2	3	4	5
7	이 아이는 또래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	2	3	4	5
8	이 아이는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9	이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바로 충족되지 않아도 충족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	1	2	3	4	5

10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별을 받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한다.	1	2	3	4	5
11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12	이 아이는 어른에게 칭얼거리거나 성가시게 들러붙는 행동을 한다.	1	2	3	4	5
13	이 아이는 에너지가 넘치고 풍부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4	이 아이는 어른들이 “안돼” 라고 말하거나 제재를 가하면 화를 낸다.	1	2	3	4	5
15	이 아이는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무섭고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1	2	3	4	5
16	이 아이는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	1	2	3	4	5
17	이 아이는 놀이에 다른 아이를 끌어들이려할 때 지나치게 흥분하고 활동적이다.	1	2	3	4	5
18	이 아이는 무표정한 편이어서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1	2	3	4	5
19	이 아이는 친구들이 놀자고 하거나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	2	3	4	5
20	이 아이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1	2	3	4	5
21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고통스러워 할 때 관심을 보이거나 함께 걱정해준다.	1	2	3	4	5
22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끼어들거나 방해할 하면 매우 흥분한다.	1	2	3	4	5
23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휘방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에 적절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1	2	3	4	5
24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1	2	3	4	5